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요약)

Avoiding Predatory Journals and Questionable Conferences:
A Resource Guide

Sarah Elaine Eaton

NRF 한국연구재단

이 책자는 캐나다 캘거리대학(University of Calgary)의 Sarah Elaine Eaton 교수가 집필한 『Avoiding Predatory Journals and Questionable Conferences: A Resource Guide』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 및 요약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가이드 전문(한국어판 및 영어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 약탈적 학술지와 (의심스러운)학회에 대한 명확한 개요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
- ❍ 약탈적 학회 및 학술지의 목록을 제공하는 대신에 연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

대상독자

- ❍ 대학원생, 연구자,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에 관심 있는 일반인
- ❍ 특히 논문 발표, 출판 등을 통해 경력을 쌓아야 하거나 승진을 준비 중인 신진 연구자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의 공통점

① 돈에 의한 동기 부여

- 학회나 학술지의 주요 목적이 지식의 발전, 새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물의 공유 등이 아닌, 돈을 버는 데 집중돼 있음
- 엄격한 동료평가(peer review)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② 파렴치한 마케팅

- 약탈적 학술지나 학회의 운영자는 번번스러운 판촉에 치중하며, 예비저자에게 스팸메일 등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임

의심스러운 학술지 및 학회 판촉물의 특징
1. 틀린 문법 및 철자법 2. 학회의 권위에 대한 과장된 표현 사용 3. 예비저자를 위한 아첨 (그들의 자부심 또는 경험 부족에 호소) 4. 비구독(unsubscribe) 버튼이 없거나 '메시지 받기 않기' 버튼이 없음 5. 신뢰할 만한 출판사와 유사한 이름 및 로고 사용

③ 신뢰성 부족과 낮은 질

- 과학 지식의 발전이나 저자의 평판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구 및 학문에 대한 지적 기여를 최종 결과물로 보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지 않음

기여자의 특징

❍ 많은 연구자들이 부실 학술지·학회에 관여한 경험으로 곤경(*)에 처하지만, 일부는 공생적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함

* 부실 학술지·학회가 약탈적(predatory)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들 학술지·학회가 학문적 발표와 출판경험을 쌓길 열망하는 연구자의 시간, 돈, 평판 등을 소위 '약탈'하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임

** Beall(2016)은 위와 같은 공생관계를 감안하여 부실 학술지·학회를 기생적(parasitic)이란 용어로 설명

【 약탈적·기생적 학술지/학회 기여자의 3가지 유형 】

기여자 유형	주요 특징
순진한 기여자 (Naïve contributors)	▪ 경험이 없거나 순진하거나 잘난 척 하지 않는 사람들 ▪ 약탈적 학술지나 학회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 ▪ 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평판에 손상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됨
인식하는 기여자 (Cognizant contributors)	▪ 학계나 연구 쪽의 직업을 갖길 원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 약탈적 학술지·학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 승진, 고용 등을 위해 이력서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자 게재 및 참가
가짜 과학자 (Pseudo-scientist)	▪ 연구 및 학문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생각과 의심스러운 믿음을 지닌 사람들 ▪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결과, 불합리한 이론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

※ 기여자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어 번역 전문 또는 영어 원문에서 확인

오픈 액세스와 APC 이해하기

❍ APC : Article Processing Charge

- 90년대 후반, 과학/학술 출판에 도입된 출판모델로서 저자가 논문을 개방형 온라인 형식으로 게재하고 비용을 지불

❍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

- APC의 도입으로 촉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특징짓는 요소
1. 공공 기금으로 조성한 연구가 대중에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설립 2. 저작권은 연구자가 소유 3. 논문은 유료화 장벽 없이 독자에게 디지털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 4. 엄격한 동료심사 학술지와 양립 ※ 오픈 엑세스 논문이 엄격한 동료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님 5. 학술지나 디지털 저장소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가 가능 6. 접근법의 일종이며 비즈니스 모델의 일종이 아님

❍ APC가 가장 신뢰받는 학술지에도 보급되면서 논문 심사료 부과 여부를 학술지의 신뢰성 및 질에 대한 평가지표로 삼기 어려움

※ 예비저자는 사전에 학술지의 세부 사항과 함께 원고 제출 전에 학술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

약탈적 학술지

❍ 약탈적 학술지의 특징

1. 비록 그런 척을 하지만 신뢰할 만한 학자, 학계 또는 기술 단체나 협회에서 운영되지 않고 연관성이 없다.
2. (그들은) 공공 기금이나 연구비를 받지 않는다.
3. 스팸메일을 보낸다.
4. 학술지의 높은 질을 자랑한다.(학술지 매트릭스와 어디에 색인되어 있는지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5.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여러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다.
6. 학술지가 색인되어 있는 곳(예: PUBMED)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다.
7. 빠른 게재를 보장한다.
8. 쉬운 동료심사 및 절차를 보장한다.
9. 존경받는 정당한 학술지의 제목과 유사한 제목을 쓴다.
10. 제목에 'International', 'World', 'Global', 또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11. 다른 지역에서 게시되었으면서도 주요 도시(예: 런던 또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12. 누가 이 학술지를 운영하는지 찾기 어렵다.

❍ 위 특성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약탈적'임을 보장하지 못함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은 제목에 International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28,000개의 학술지 중 105위를 차지하는 신뢰성 있는 학술지임

Tips 원고를 어디에 게재할지 파악하는 방법

❶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 또는 연구자의 이력서를 살펴보기

-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가 어디에 발표하는지 비공식적으로 분석한 후 게재하고 싶은 학술지 목록 작성
-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믿을 만한 조언자나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

❷ 도서관 사서와 상의

- 도서관 사서는 가장 유용하지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음

❸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F)를 조사

- 영향력 지수는 학술지의 품질에 대한 경쟁 지표
- 제3자가 해당 학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약탈적 학회

❍ 약탈적 또는 허영적 학회의 특징

1. 학회가 신뢰할 만한 학자나 과학단체 또는 협회가 아닌 영리집단에 의해 운영된다.
2. 다양한 학술 주제 또는 학문 분야를 하나의 학회로 결합한 학회, 서로 관련이 없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하나의 학회로 결합한 학회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학회가 Gmail 주소와 같은 무료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다.
4. 주최자는 예비참석자에게 스팸메일을 보내 등록을 권장한다. 종종 이러한 스팸메일에는 학회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자랑하는 말들이 담겨져 있다.
5. 누가 이 학회를 주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없다. 또는 주최자가 명성이 없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6. 논문 초록이 짧은 시간 내(4주 미만)에 선정될 것임을 보장한다.
7.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 하는 휴가지에서 열린다. 학회가 리조트나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열리며 학술 및 과학 학회가 아니라 휴가처럼 선전된다.
8. 학회 이름은 믿을 만한 학회 또는 매우 유명한 학회와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9. 주최자는 당신의 원고가 학회와 관련된 저널에 게재될 것임을 보장한다.

10. 학회 웹사이트가 불안정하다. 지난 몇 년 동안 URL을 변경하거나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다.
11. 웹사이트의 본문에 문법이 잘못되었거나 철자 오류가 많다.
12. 비영리학회나 협회가 운영하는 학회 등록비에 비해 비싸다.

❍ 위 특성들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약탈적 학회를 밝혀낼 수는 없음

※ 신뢰할 수 있는 학회라도 참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개최되기도 함

Tips 원고를 어디에 게재할지 파악하는 방법

❶ 참석자들이 학회 장소에 도착하자 학회가 이상하게 취소되었다.
❷ 학회가 열렸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학술적 또는 과학적 학회와 유사하지 않았다. 대형 학술대회처럼 여러 개의 회의실에 분산되어 진행되지 않고 호텔의 단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❸ 소수의 사람만이 학회에 참여하였다. (때때로 20명 이하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❹ 참석자가 많아 보이려고 발표자의 가족이나 자녀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석자의 이름과 사진이 허락 없이 다른 학회의 개최를 위해 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❺ 여러 다양한 주제 또는 분야(때로는 완전히 각기 다른 학회라고 선전한)에 대한 '학회들'이 동일한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발표자들만이 그 방의 유일한 참석자였다. 참석자들은 전적으로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발표에 관심이 없었다.
❻ 참석자들은 기조 연설자나 세션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그 후, 그들의 이름과 사진은 학회 주최자들이 개최한 여러 학회에서 얼마든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
❼ 약탈적인 학회에 참석한 후 참석자들은 약탈적 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명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거나 당혹스러워 했다.

❍ 학회가 의심스러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 허영적 또는 약탈적 학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할 것

※ 교수 참고사항 :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이 약탈적 학회에 이용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교육

질문	예/아니오/불확실	주의 사항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할 때 조심해야 한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합법적으로 보이는가?		이메일이 무료 계정(예: Gmail, Yahoo 또는 Hotmail)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라면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다.
내가 존경하는 나의 교수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아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이 이 학회에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하기 전에 두 번 이상 생각해야 한다.
주최 측이 아첨하는 이메일을 보내는가?		학회 주최자가 아첨하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 신뢰할 만한 학회는 생각을 공유(심지어 비판)하지만 당신의 자부심을 치켜세우진 않는다.
학회 주최 측은 이 학회가 권위 있는 학회라고 주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그들의 신뢰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협회나 단체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한다.
주최자가 신속하게 수락을 보증하는가?		의심스러운 학회는 논문 초록에 대해 짧은 의사 결정 시간을 보장한다.
주최자는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동료평가 없이는 논문의 게재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리는가?		만약 학회가 학문적인 학회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선전한다면 약탈적인 학회일 수 있다.
이 학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은가?		이 기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다면 약탈적 학회일 가능성이 있다. 신뢰할 만한 조언자와 상의해야 한다.

학계를 위한 시사점

❍ 의심스러운 학술지나 학회를 피해 연구결과를 게재 및 발표하는 일은 학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수, 학과, 기관, 출판업계 전체의 책임

- (신진연구자/대학원생) 웹페이지나 도서관 가이드는 수동적인 형태의 자료이므로 해당 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함
- (기관/교수/학과) 신진연구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워크숍, 면담 등을 통해 연구결과의 올바른 게재 및 발표에 대한 교육 필요
- (기관의 행정실/예산감독 부서) 학회 참가비나 출판 수수료를 배분할 때 실사할 필요가 있음

결론

❍ 궁극적으로 연구자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함:

이 학회나 학술지는 나의 1) 시간, 2) 돈, 3) 평판을 들일 가치가 있는가?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요약)

| 발 행 일 | 2018년 9월
| 발 행 처 | 한국연구재단
| 문 의 처 | 정책연구혁신센터 정책연구팀
(042-869-6694)